



눈길

울산외국어고 3-5 권수빈

소복이 쌓인 눈 위를 질주하는 겨울 스포츠 스노보드, 어릴 적 눈과 나무판자 위에서 나는 용기를 배웠다. 보통의 운동들을 배울 때는 기본기를 먼저 연습한다. 기본자세나 기술 등... 그러나 유독 안전상의 위험이 큰 눈, 얼음 위 겨울 스포츠들은 다른 것을 하나 연마해야 한다. 어쩌면 그 어떤 기술보다 큰 용기가 요구되는 그것은 바로 ‘잘 넘어지는 법’이다. 스노보드는 ‘잘 넘어지는 것’으로부터 시작된다.

어릴 적 처음 스키장에 갔던 날, 주위 대부분의 친구들과 달리 난 스키가 아닌 스노보드를 먼저 배우게 되었다. 새하얀 내리막길 위 두 발이 긴 보드 위에 고정되어 있는 공포심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다. 지금까지 균형감을 요구하는 운동들을 배워왔기에 보드를 타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내려갔다. 그렇게 내려가길 수차례, 사건은 더 높고 어려운 길 위에 서게 되었을 때 터지게 되었다. 급경사 구간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지 않고 속도만을 줄이려다 앞으로 넘어져 눈 위를 굴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 곳곳이 욱신거렸다.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넘어지며 생긴 공포심에 이전처럼 타기는 어려워졌다. 그

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경사가 완만한, 보드를 처음 배웠던 곳으로 날 다시 데려오셔서 제대로 넘어지는 법에 대해 다시 알려주셨다. 눈 위에서는 똑바로 넘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크게 다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넘어질 것 같을 땐 그냥 넘어지라고 거듭 강조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제대로 넘어져보니 자연스레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. 이날을 통해 잘 넘어진다면 그 행위가 더 큰 상처나 고통으로부터 날 보호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.

살아가며 우리는 모두 어둠과 밝음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 경험들은 우리를 형성하기도 성장시키기도 한다. 과거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버텨왔던 사람들이 성공한 뒤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 들려주는 강의 혹은 연설이 뻔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. 그러나 그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배웠기에, 다시 넘어질 땐 안전하게 잘 넘어지고 금방 일어날 수 있었기에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. 누구에게나 처음은 두렵다, 상처가 아프거나 흥이 남을 수도 있다.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 등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결국 무한한 처음과 마주해야 할 뿐이다.

지금 우리 모두는 아주 긴 눈길 위를 내려가고 있다. 누군가는 빠른 속도로, 누군가는 불안정하게, 누군가는 이미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.

당신이 서 있는 길 위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마주했다면,
“당신은 넘어질 준비가 되었는가.”